

세계화의 '당간지주' 세웠다

태고종 아메리카·유럽교구 설립...외국인 스님 6명 수계



태고종은 4월 4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아메리카-유럽교구 총무원장 임명 및 교구인정서 수여식, 아메리카-유럽교구 외국인스님 수계식을 개최했다.

태고종이 아메리카-유럽교구를 설립하고 세계화 시대를 열었다. 태고종은 4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아메리카-유럽교구 초대 총무원장 종매 스님(불교학박사, 미국 로올라대학 교수)에게 임명장과 교구인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아메리카-유럽교구 교구인정서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종단의 해외포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메리카와 유럽지역에 현지 포교를 담당할 교구총무원을 설치함으로써 해외포교를 아메리카와 유럽지역으로 확대해 종단의 해외포교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종매 스님은 "전 종단을 통틀어 한국불교에서는 처음으로 해외교구가 설립돼 초대 총무원장을 맡게 돼 책임감이 앞선다"며 "한국불교와 그 지역의 사상과 전통을 가미해 포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태고종은 중앙금강계단에서 아메리카-유럽교구 사미(니)계 수계식도 거행했다. 수계 스님들은 미

국인인 헤문(Mose Ensley) 헤월(Nile Wamer) 헤공(Derek Wamer) 헤중(John Maxwell) 스님과 캐나다인 헤광(Robert Gallop) 스님, 오스트리아인 요현(Karin Sima) 스님 등 외국인 6명. 이들 스님들은 당게는 20년 전 행자교육을 받고 가수계를 받아 현지에서 대학교수와 의사, 태권도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수행 및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태고종 아메리카-유럽교구의 스님들은 수계식 후 한국불교의 수행과 교화 및 불교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9일까지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스님들은 북한산 태고사 보우 국사 부도탑을 참배 한 뒤 순천 선암사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친견했다. 또 보성 금문사, 서울 봉원사·법원사 등에서 차문화, 발우공양, 전통예불, 영산재, 불화단청을 체험했다.

종매 스님의 만상적인 헤월 스님은 "한국에 여러번 왔지만 이번처럼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기는 처음"이

라며 "미국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께 한국불교를 얘기하고 포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헤공 스님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 것 같다"며 "태고종을 위해 일하는 승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방불교대학(학장 자월)은 4월 유럽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에 정 부등록 종교학교로 운영중인 불교통신대학(BS)을 졸업하는 외국인 10명을 출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종매 스님은 1978년 미국에 보광사를 건립하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불교관장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interview

아메리카·유럽 총무원장

종매 스님

"사찰관리·포교 역점"

"정과 혜를 바탕으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해외교구로 만들겠습니다."



4일 태고종 아메리카-유럽교구 초대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종매 스님(사진). 스님은 "현재 아메리카와 유럽에 운영중인 태고종 사찰 10여 곳의 관리와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내년에는 불교통신대학(BS)을 졸업하는 외국인 10명을 출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종매 스님은 1978년 미국에 보광사를 건립하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불교관장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상생의 원리·자연미 살려 '조화'

전통불교문화센터 윤곽 드러나...내년 완공 예정

공주 마곡사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전통불교문화센터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4월 4일 실시설계안을 공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04년부터 전통불교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부지에서 가마터가 발굴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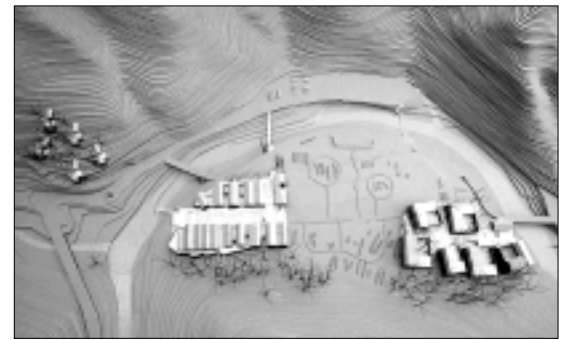
설계안은 국내 유명 건축가로 꼽히는 이보재 건축사무소 승효상 대표가 완성했다. 그는 현대 건축 속에 전통건축의 공간과 삶의 활약을 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한다.

전통불교문화센터는 약 4500평의 대지에 1660평 규모의 교육연수시설과 1400여평 규모의 숙박시설로 구성된다. 건물은 3층으로 제한해 마곡사에서 이어

지는 산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각 동은 주변의 자연과 어울려 도록 분할해 배치한다. 전통적인 사찰건축의 '채의 분리'를 계승

한 것으로, 동과 동사이의 이동에서 자연과 동화·조화를 중요시 여긴 것이다. 숙박동에는 전통사찰에서 쓰이는 조경법을 계승해 돌, 흙, 풀 등 자연요소를 도입한 독립적인 안

마당을 조성한다. 뒷마루도 설치해 마당과 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교육연수동은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지만 개별 체들은 중정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 개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3층은 전통적인 은둔방으로 만들어 간화선 등 각종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불교문화센터 모형.

이석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차장은 "2008년까지 자부담 122억원 국고보조금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애들이 인터넷에서 만나자"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포교사이트 구축

인터넷으로 부처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어린이 포교자료실(사이트)이 구축된다. 어린이 포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도 개발된다.

조계종 포교원이 진행중인 사업은 멀티미디어 포교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어린이 포교를 위한 대안

위 인터넷 자료실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어린이 법회 지도자들을 위한 자료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또 전국 단위 사찰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별 법회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사찰

및 지도자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는 어린이 포교행사 등을 안내하는 '행사',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제공되는 '자료실', 지역별 사찰법회 현황 등을 관리하는 '전산관리 시스템', '연결된 어린이 지도자 모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포교원은 올 10월말 정상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직할총회의원 종성 스님 당선

조계종 직할교구 중앙총회의원에 종성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종성 스님은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직할교구 보궐선거에서 193표를 얻었다. 지일 스님은 134표, 동출

스님은 89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에는 총 유권자 863명 중 440명이 참여했으며 유효표는 416표, 무효표는 24표였다.

1984년 사미계, 87년 구족계를 수지한 종성 스님은 해인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단했다. 남동우 기자

전통조계종 각암 종정추대 전통조계종은 4월 3일 총무원장 연수원을 비롯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자연환경



연수원에서 초대종정 각암 스님 추대식을 병행했다(사진). 종정 각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화합으로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창종 60주년 행사 '풍성'

진각종 '만다라 사경대회' '인터넷 게임' 등 개최

진각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세 대별, 연령별, 조직별 맞춤형 포교를 위해 자성동(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진각종은 이를 위해 각 교구에 분산돼 있는 자성동(어린이) 청년회, 신도회까지 참여를 유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만다라 사경대회' '인터넷 게임대회' '통리원장제 미니축구대회' 등을 개최한다.

'만다라 사경대회'는 4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 심인당에서 자성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대상으로 연다. 수상자는 6월 1일 발표예정이며 총 상금은 245만원이다. 김원우 기자

또 '인터넷 게임대회'는 학생회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금 200만원을 걸고 각 교구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2회 짝을 맞는 자성동이 미니축구대회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위덕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16개(저학년 8팀, 고학년 8팀)팀이 참가해 진행된다.

이밖에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족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개 교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대회는 족구 외에도 이어달리기, 장애물 경기, 교리퀴즈, 장기자랑 등을 열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에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un.com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등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60년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간했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나니라.
- 범망경 중 -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통도사에서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세계생생 이어질 선근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정해년 불기 2551년
· 입재일 2007년 4월 21일(음. 3월 5일) 토요일
· 회향일 2007년 4월 23일(음. 3월 7일) 월요일
- 장소** 통도사 금강계단
- 전개대화상** 전개대화상 중산 예념
- 등참금** 50,000원
- 문의 및 접수처** 화엄전 접수처 055)381-1288 각 말사(암) 총무소
- 연락처 :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5-6544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포총사 (055)352-1150 밀양 무봉사 (055)354-3296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서울 보현사 (02)355-9815

- 통도사 버스 - 부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09:00
울산 : 공업탑 로타리 제일주유소 08:00
무거 로타리 고속도로 진입로 08:10
- 대중교통 - 부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구 : 고속터미널 '부산행 일반고속' 서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